



김건상 박사

Artery, Vein/동맥, 정맥<하>

Windpipe와 돌무늬를 묶어서 혈액순환 이론을 세운 이는 William Harvey인데 근대 생리학의 가장 두드러진 업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Harvey는 모세혈관에 대하여는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얼마 후에 Malphigi가 windpipe와 돌무늬에 싹뿔줄을 보태서 Harvey의 혈액순환을 완성하게 되었다. 물론 Harvey 이전에도 혈액순환에 대한 의견은 많이 있어서 중국의 황제 내경에도 언급되어 있기도 한데, 업적은 업적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업적이 미친 파급 효과를 놓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마치 우리 조상으로 생각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베링 해협을 건너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간 것은 사실인 것으로 여겨지지만 아메리카의 발견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실증하면서 항해를 한 콜럼버스의 업적으로 인정해야만 하는 것과 같다. 그것은 1492년의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혹은 재발견)이 구세계에 미친 영향과 효과가 엄청난 것이었기 때문이다.

독일의 마인쯔에 가면 금속 활자를 서양에서는 처음으로 발명한 구텐베르그를 기념하는 박물관이 있는데 이 박물관에서는 구텐베르그의 금속 활자 발명이 성경의 대중화 등에 미친 문화적 파급 효과를 자랑하면서도 한국 사람이 이보다 200년 앞선

시대에 이미 금속활자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담담하게 밝히고 관련 전시물들을 짚짚하게 전시하고 있는 것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하였다.

일본의 우끼요에라고 하는 판화는 유럽의 후기 인상파 화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고, 서양미술사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우끼요에를 유럽 화가들이 처음 접한 것은 미술상들의 소개에 의한 것이 아니고 당시 일본의 주요 수출품이었던 도자기((아마도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끌려간 이 참평이 창시자가 되는 아리타 지방의 도자기 가마에서 생산된 유명한 아리타야끼나 이것들을 수출한 항구의 이름에서 유래된 이마리 도자기가 주종이었을 것이다)를 포장한 종이에 그려진 것들이라고 한다. 물론 나중에는 상당한 수의 작품들이 작품 대접을 받으면서 수집되기는 하였다고 한다.

고립된 문화는 가치가 적은 것이고 교류를 통하여 서로 영향을 주었을 때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연구 업적들이 발표되고 있으나 국내 잡지에 게재되어 사장되는 일이 많은 것이다. 좋은 연구 업적들이 국제 공인 잡지에 게재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우리 잡지들이 국제 공인 잡지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